어린이 책꽂이

▲문화를 알면 사회가 보인다(우리 문화 편)=초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의 뿌리인 전통문화를 다뤘다. 설날, 추석 등 주요 명절에서 부터 조상들의 삶과 지혜, 여가문화 등이 소개돼 있다.

〈애플비·8천800원〉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최근 40여년간 몸담아온 교단을 떠난 섬진강 김용택 시인의 동시집. 꽃, 풀, 새,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시인이 고향마을과 산골학교에서 보고, 느낀 것을 동시로 담아냈다.

〈창비·8천500원〉

▲아옹 아옹 콜린과 쿨쿨상자=떠돌이 고양이 콜린의 포근한 잠자리 찾기 소동을 그린 그림책. 낮잠을 자고 싶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콜린은 과연 언제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국민서관·9천원〉

▲중국 땅따먹기=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통해 자칫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중국의 문화, 역사, 인물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한 책이다. 베이징, 홍콩, 소림사 등의 명소를 별도의 학습페이지로 구성해 중국의 문화와 역사의 흐름을 보여준다.

〈키움·9천800원〉

▲양반은 못말려=조선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시문집 '연암집'에 수록된 양반전, 호질, 광문자전 등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다. 무능한 양반과 기회주의적인 부자, 무능한 관리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생각의 나무·9천원〉

일본은 왜 무책임한 나라가 됐을까

일본의 재구성 패트릭 스미스 지음

잊을 만하면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와 온 국민을 공분케 하는 나라. 총리까지 나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외면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왜 일본은 이처럼 무책임한 것일까. 일본의 국민성은 원래 그런 것일까?

독도 도발과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관계에서 어느 때보다 역사의식이 강조되는 시점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담은 일본 해설서가 나왔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등의 특파원으로 20여 년간 아시아에서 활동했던 패트릭 스미스는 '일본의 재구성'(원제 Japan : A Reinterpretation)을 통해 "국민성과는 상관없는 문제"라며 일본이 왜 '국가적 정체성이나 역사의 기억과 망각이라는 문제에 관한 한 아직도 현재진행형 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현대 일본이 처한 문제의 핵심은 '스스로를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일본은 일본 국민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일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터무니없이 부패하고 시장 우월주의에 집착하고 환경보호에 무관심하고 개인을 숨 막히게 하고 정치적 기능이 원할 하지 않은데다 지도자가 부재하고 결단력이 없는 나라' 일본은 미국이 만든 일본상이며, 미국은 이런 일본을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방일 중 숙소인 일본 도쿄 시내 제국호텔앞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이라며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 사회의 보수 우경화는 독도 도발로 표출되고 있다.

저자는 또 미국이 덴노(일왕)의 죄를 덮어버림으로써 일본사회에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를 조장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역사는 부인할 수 있는 것이 됐고 이후 무책임이라는 사조가 정치·교육·외교 등 각 분야에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현대 일본이 부끄러워하는 진짜 일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일본의 문제는 일본 '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사는 모든 구성원의 문제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물론 책의 중심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지고 일본이 거기에 자신을 맞춘 일본상의 해체에 있지만 그 갈라진 틈사이로 생생한 일본, 정확히는 일본 '인'의 맨얼굴을 보여주고자 했다.

종신고용과 무파업의 신화 속에 가려진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와 서류 가방을 든 사무라이라는 표상 아래 신음하는 일본 소시민들의 삶을 보여준다. 또 일본 내의 타자들인 아이누족, 오키나와인, 재일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책의 많은 부분은 한국의 현재와 겹쳐 보인다. 개발 지상주의, 수도권과 지방의 철저한 분리, 정경유착과 비리, 약소국 경시, 외국인 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무시 등은 공통적 양상이다. 특히 살벌한 경쟁과 주입식 교육 등 일본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부과된 고통을 상술하는 대목에서는 한국의 현재를 보는 듯 착시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마티·2만6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학자·탐험가의 우스꽝스런 모험이야기

세계를 재다 다니엘 켈만 지음

독일 작가 다니엘 켈만이 실존했던 수학자와 탐험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장편 소설 '세계를 재다'를 펴냈다.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두명의 주인공은 무엇이든지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탐험가이자 해양학자인 훔볼트와 온종일 수학과 물리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며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은둔형 천재 가우스다.

소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크기를 재기 위해 긴 여행길에 나섰던 두 사람의 우스꽝스런 모험 이야기를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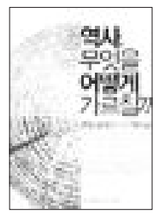
기존의 묵직한 독일 소설의 전통을 벗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은 소설로 출간 후 100만부 이상 팔리고 35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 쥐스킨트의 '향수' 이래 가장 많이 팔린 독일 소설로 기록된 책이다.

〈민음사·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장 역사교사들이 쓴 역사교육론

역사, 무엇을 가르칠까 전국역사교사 모임



현직 역사 교사들이 결성한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역사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성과물들을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로 묶어냈다.

역사수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능동적인 재해석은 종래의 역사교육 관련 책에서는 보기 드문 문제의식이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을 꼼꼼이 짚으면서 수업 현장과 연관된 분석을 시도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으론 역사수업의 저변을 이루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평화교육과 같은 굵직한 쟁점들을 수업 사례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수업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또 교실에서 갓 건져 올린 역사교육, 그 생생하고 풍성한 상차림이라는 말에 어울리게 여성사, 노동사, 생활사 교육에 관한 고민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휴머니스트·2만원〉

/김대성 big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이청준 '매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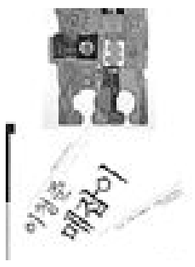
얼마 전에 한국문단의 또 하나의 별이 사라졌다. 한국문학의 머릿돌이었던 이청준 선생은 죽음마저도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고 '당신의 천국'에 잠드셨다.

소설가 이청준은 고향 땅 장흥에서 어머니 곁에 묻히셨지만 그가 남긴 족적은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다. 이청준 선생은 그에 많은 작품을 통해 뜨겁게 생동하는 모국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이청준 선생이 구축한 작품의 세계는 방대하지만 필자는 '매잡이'에 주목한다. 1968년 '신동아'에 발표된 중편소설 '매잡이'는 그다지 많지 않은 분량에 쉽게 읽히는 소설이지만 대하소설 못지않은 두터움과 깊이로 독자에게 다가오는 작품이다.

'매잡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외곽으로 밀려나 고집스럽게 전통을 추구하는 매잡이 곽돌의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운명을 액자 소설적인 구성방식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매잡이 곽돌은 멸시 받아 마땅한 사회 부적응자이다. 시류에 적응하지 못한 곽돌은 매잡이이면서도 제대로 된 사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매잡이는 마을사람들의 비난과 외면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면서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이 소설에서 우리는 사라져가는 옛것을 지키려는 장인정신을 볼 수 있다. 매잡이 곽 서방은 타락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한 장인이었다.

곽돌의 죽음은 물질만능의 세태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장인정신의 몰락을 의미한다. 이청준 선생의 '매잡이'는 필자의 작가정신에 시금석이 되는 책이다.

이 소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의 목숨마저도 자본으로 환산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오늘날에 와서 우리의 삶은 장인정신에서 까마득히 멀리 떨어져있다. 저마다에게 주어진 일이란 보상행위이며 자본의 가치로 평가된다. 얼마의 보수가 주어지느냐가 직업의 가치와 수준을 결정한다.

보수의 많고 적음이 직업의 가치 척도가 되어선 안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에 자본의 잣대만 들이댄다면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놓칠 수밖에 없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자본의 논리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대야말로 투철한 장인정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저마다의 직업이 노동과 보수의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 삶은 저급하고 통속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각자가 맡은 일을 천직으로 알고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서 보상행위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야한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여 성취감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더 고양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청준 선생의 '매잡이'는 참된 삶을 영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 봐야할 권장 도서이다.

참된 삶의 가치 일깨워 줘

최일걸〈시인〉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代)234-8216 핸 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도
·금남로 대로점 대지 231㎡(70평) 5층 20억
·충장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충장로 대지 208(63평) 4층 18억
·충장로 대지 165(50평) 4층 23억
·황금동 대지 132(40평) 3층 10억
·광산동 구시청 대지 537(163평) 4층 15억
·불로동 천년대로변 코너 대지 294(89평) 4억
·용봉지구 3번도로 단층 대지 1,190(360) 8억
·월산동 대로변 대지 390(118평) 6층 6억5천만
토지매매
·은림동 4차선접 2,627㎡(804평) 당 160만
·은림동 녹지 3,966(1,200평) 2억4천만
·월ölö대로접 주거지 1,090(330평 4억8천만
·봉선동 25m접 2,315(700평) 3.3㎡당 250만
·도천동 자연녹지 16,530(5천평) 3.3㎡당 75만
·도산동 전철역앞 주거지 6,611(2천평) 20억
·안청동 주거지 11,900(3,600평) 3.3㎡당 80만
전원주택
·청풍동 주거지 760㎡(230평) 당 70만
·금곡동 주거지 1,490(450평) 1억4천만
·운림동 대지 463(140평) 한옥 1억1천만
·지산동 녹지 3,640(1,100평) 3억5천만
·덕암 창평 소재지 대지 2,300(700평) 2억
·화순 남면 대지 660(200평) 한옥 4천만
임야
·화순 도곡 관리지역 52,900㎡(1만6천평) 당 8만
·화순 도곡 야산 105,700(3만2천평) 3억
·화순 도곡 3,200평 3.3㎡당 6만
·화순 남면 관리지역 165,000(5만평) 5억
·화순 한천 218,000(6만6천평)3.3㎡당 6천원
·화순 이양 53,000(1만 6천평) 9천만
기타부동산
·조대 대로변접 대지 760㎡(230평) 8억
·금호동 중원@ 대로접 330평 3.3㎡당 400만
·화순 계곡집 6,600(2천평) 8천만
·보성읍 자연녹지 30,000(9천평) 1억3천만

상무랜드공인중개사
☎(代)383-5221 핸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건물
▪대607/건1,352 보36억/월 3,000만원 매매가 85억
▪대142/건200 보1억/월세 1,000만원 매매가 15억 5천만원
▪대260/건2,000 보20억/월 4,000만원 옹지 18억 매가 65억
▪대200/건900 보30억/월 2,000만원 매매가 55억
▪대300/건1,200 보4억/월 1,100만원 매매가 24억
▪대125/건175 보1억/월 800만원 매매가 15억5천
▶땅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3,421㎡(1,050평) 3.3㎡당 700만원
▪2,800㎡(850평) 3.3㎡당 1,200만원
▪727㎡(220평) 3.3㎡당1,200만원(유통)
▪450㎡(136평) 3.3㎡당 850만원(유통가)
▪330㎡(100평) 3.3㎡당 800만원(사적임대)
(기타지구)
▪자연녹지 대로변 3,000평(예식장, 학원적합) 평당 180만원
▪생산녹지 대로변 3,000평(예식장, 학원적합) 평당 250만원
▪주거지역 BOD세대 아파트입주 877㎡(266평) 3.3㎡당 350만원(수의적합)
▪(농장) 광산구 동산동 73,000㎡(2만2천평) 농장 3.3㎡당 9만원(동산동)
▪(생촌동) 대지 512㎡(155평) 20m 도로접 3.3㎡당 265만원
▪(장등동 3,760㎡ (1,140평) 평당 40만원
▶병원·학원·수퍼·식당 기타
▪(하남삼성홈플러스옆 시거리치도) 근린지구1,652㎡(500평) ㎡당 600만원
▶모텔·호텔매매·사우나
▪객실35개 옹지16억 매가28억
▪객실70개 매매가38억
★24시간 전화 물건 접수합니다★

HOMECON RESEARCH & REAL ESTATE 홈컨 不動産 리서치
상무지구 한국은행 뒤 ☎ 062)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 仲介 · 開發 · 리서치 선언!
공동대표 김윤삼
·호남대 부동산학 석사
·한국 농촌공사 7년
·광주대도시부동산학과 출강
·부동산개발&부동산분석(분양)
·국토등신중개실무 3년
공동대표 박길수
·실무관계 법학통
·행정고시(재경직, 본직, 합격)
·부동산업 실무교본 저자
·TV패널, 세테크칼럼 등
·부동산업기획, 분석 전문가
공인중개사 소장 정문호
·동기자원 업무 5년
·도시계획학과졸 농학박사
공인중개사 소장 김기영
·LBA부동산학과교육 이수
·동기업직원 담당
· 받은 것보다 큰 이익을 줍니다.
· 얼굴을 걸고, 책임 있게 합니다.
· 천천히, 정밀하게 합니다.
· 차분하고 정돈된 사람들입니다.
· 고객에게 늘 __ 을 줍니다.
(2억이상) 분석된물건 수 (정리중) 건
(2억이상) 의뢰 고객수 (정리중) 분
※ 프로젝트 중개, 개발, 리서치 관련 고객의뢰 후 시장, 입지, 사업타당성, 위험등분석등을 거친후, 최적물건(안), 설득조건등을 첨부 리포트로 추천 하여, 책임있게 거래하는 중개 방법을 말함.

금당부동산
☎(062)223-7400 핸 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엔터시네마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정가 70%이하
⊛농성동 준주거200평 공시가 9억7천 매도6억4천
⊛임동71평 공시가1억7천 상가원룸적합 1억2천
⊛봉선동 소방도로코너 대지45 건평103 일부는 공실이고 전세3천 월58만원 매도1억5천5백
⊛안미시술소. 노래방등 경매물건 우산동 대지185 건평624 법상가 18억 매도 9억
⊛양동 상업지 123평 원룸,다세대 적합 대출 2억 공시가 3억2천 매도 2억4천
⊛월산등 4차선도로 117평 공시가4억6천 매도 3억
감정가이하
⊛대인동 대지100 건평367 노래방·PC방 완룸·투룸 18개와 주택 45평 법인이전합 8억3천
⊛신안동 나대지 94평 공시가 3억3천 매도2억4천
⊛북동병원 대지123 건평220 공시가3억2천 매도4억
⊛금남로5가 목욕탕 340평 법상가 9억 매도 5억 전세2억 월230 임대도 가능
⊛호남등 세무서 건너 대로변106평 9억6천
⊛풍암동 주택과 여관 대지108 건평 138 주택 4채는 6천에 임대중이고 여관은 원룸으로 개조 적합 대출1억2천가능 매도 1억9500
⊛수기동 버스도로 대지33 건평118 공시가2억 2,3,4층은 공실 현재는 전세6천 매도2억8천
⊛금남로5가 큰사거리 부근 4층건물 대지15 건평49 다양한 용도 2억3천
⊛대인동 버스도로 4층건물 대지23 건평77평 3층은 공실 1억6천5백
투 자
⊛벽진동 대지124 주택은 수리해야함. 공시지가 9천4백 매도9천만원
⊛디용도사용 미륵동 575평 공시가5억 매도5억4천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관리지역임야2800평 국유지400평도사용가능 복지시설등적합 3억2천
⊛장성군 삼계면 서창주거지 989평 1억천
⊛소촌동 331평 공시가2억3천 매도 2억천
⊛전원생활적합 광산구 송산등 대지450평 호남대학에서 6분 공시가1억3백 매도1억4천
⊛전원주택지 개발된곳 담양군 남면 3556평 대출7500 매도1억7800만원
⊛월름적합 나대지 광주공원부근 143평 1억8천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 대덕터널부근 관리지역 임야 5455평 복지시설, 종교시설 적합2억 3천
⊛담양 금성면 도로접 관리지역 답3800평 공장, 복지시설등 적합 1억4천
⊛동구 소태동 2차선도로 439평 공장, 창고, 복지 사설등 적합 대출1억9천 매도 2억3천5백
매도·교환
⊛공장부지 담양군 무정면 1050평 1억5백
⊛나주 노안면 학산리 대지206 건평25 미트나 양동금호아파트와 교환가 1억6천
⊛절(사찰) 광산구 산정동 아파트와 상가지역 대지61 건평87 대출1억3천 매도2억9천
⊛절(사찰)산수오거리 3층건물 1억6천
⊛담양군 추월산 밑 담양댐에 접한 땅1090평. 별장·연수원·사찰·요양병원적합 3억2천만원
⊛명당 전원주택지 곡성을 서계리 광주에서20분 대지483평 오피스텔아파트, 상가와교환 6천만원
⊛전원주택 나주 남평 중림리 한옥 땅255평 9천만원
⊛묘지15기 만들어진곳. 담양군 봉산면 국도접 800평 명당자리임. 광주에서10분 8천만원
⊛감진군 군동면 녹차밭6천평 포함한 밭18,000평 건물과 교환 5억8천
⊛능성등 대지44 건평120 전세1억 월40, 2억6천
⊛구례군 섬진강부근 땅 38,425평 수목원,팬션,종교시설,약초재배적합 주택있고 6억5천
이전만해갈 물건
⊛신안동 대지75 건평 293 전세3천 대출2억5천 가능 지하, 1층일부 3·4·5층 공실 2억8천5백
⊛북구 우산등 대지70 건평 150평 감정3억5천 전세 7300은 내주어야하고 대출 1억8천 매도700
⊛남광주시장 원룸19개 대출1억3600 원룸9개 전세4천 월150만원 원룸10개는 공실 매도800만원